

어린이집 학습공동체 첫 시작

전북교육청, 올해 20팀 선정... 유아·놀이중심교육 내실화

어린이집 학습공동체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어린이집 학습공동체 20팀을 선정했다. 이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나눔을 통해 교육과정 실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자연·환경사랑, 인성·인권교육, 유보 이음교육, 유아책 놀이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된다. 주제에 따라 △단일 어린이집 △다수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공사립유치원 연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간 교류의 시간을 통해 상호이해의 시

간을 갖는다. 특히 어린이집 학습공동체는 올해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주제에 따른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성과를 공유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집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고,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이룰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9일 전주 이종본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회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학부모협의회회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부모 정책 방향 수립 머리 맞대다

전북학부모협의회회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주 이종본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의 학부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전북학부모

협의회회 운영 방향 공유, 학부모협의회회 조례 및 시행규정 개정 논의, 전북학부모한마당 추진 계획 등이 있다. 김지숙 전북학부모협의회회장은 “전북학부모협의회회는 각 지역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의회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전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부모협의회회가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돼 교육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지역별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체계화

전북대 생체재료연구실, 기술이전 우수실험실 선정

전북대 박찬희 교수팀이 운영하는 생체재료 및 메카노바이오로지 연구실이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JBNU ETLA)’에 선정됐다. 19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생체재료 및 메카노바이오로지 연구실이 의도기 개발 전문기업(썬아 이메디텍과 체결한 중·대형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다. 해당 연구실은 전기방사시스템을 활용한 나노섬유 기반 인공도관 및 신경도관 등 첨단 바이오소재 기술을 이점하며 국내 의료소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분야에서 국내 기술 독립 가능성을 확보한 점, 그리고 산학협력의 기반으로 후속 제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기술적 파급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전북대 박찬희 교수팀이 운영하는 생체재료 및 메카노바이오로지 연구실이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JBNU ETLA)’에 선정됐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수행 중인 교육부 대학 창의적 산실실용화 지원사업(BRIDGE 3.0)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R&D) 등 국가 연구사업과의 연계로 이뤄진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손정민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 지정을 계기로 대학

실험실의 R&D 역량을 산업계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며 “기술로 재투자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21일

교원 대상 생애주기 전문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오는 21일 도내 초·중·고교 및 교육전문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교원의 교직 경력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생애주기 연수로, 4년 이하의 저경력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부: 교사의 역할, 영화에 묻다’라는 주제로 1902년 조선 최초의 이민주들의 독립을 위한 애환을 그린 ‘하와이연가’와, ‘2부: 교사의 역할, 철학에 묻다’라는 주제로 철학적 사유와 질문의 힘으로 교사의 소명을 성찰하는 ‘전쟁터로 간 소크라테스’ 등이다. 특히 1부와 2부 사이 밴드 공연 등 연수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2025년

사회적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최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5 사회적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춘계학술대회는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제1부는 전주대 대의부총장인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의 ‘새 정부 사회적경제기반법에 대한 입법론’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이 펼쳐졌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제1세션: 사회적기업 성장 방안 △제2세션: 통합돌봄을 위한 기술혁신, 사례 및 미래전략 △제3세션: 위험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으로 세션을 나눈 각 세션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올해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 대학신문사, ‘한일 시민 일상에 스며든 문화교류’ 주제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 소속 대학신문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2025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2차)’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대학신문사는 ‘한일 시민의 일상에 스며든 문화교류의 흐름 조망’이라는 주제로 지원사업에 선정,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생활 속 문화 교류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시민 여론과 세대별 인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통해 도쿄 신오쿠보, 노인대학, NHK 문화센터 등 주요 기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기획 기사는 9월 이후 전주대신문,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되며, 완성된 기획 기사는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내 플랫폼인

NewsPicks, note에도 보도된다. 이번 사업을 기획 총괄한 전지은 편집장(한국어문학과 23학번)은 “학교 대표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취재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소담 미디어센터장(영어교육과 교수)은 “대학신문사 학생 기자들 스스로 정부 사업에 직접 도전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학생 기자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주대 미디어센터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참고해 ‘전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자체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인디코드’, 국제개발분야 대표 세미나로

2022년부터 26회에 걸쳐 글로벌 이슈 다뤄... 국내 최초 기획 ODA 최신 이슈 등 제시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릴레이 세미나인 ‘인디코드(INDECODE)’가 국내 최초의 시도로 주목받으며, 국제개발 분야의 대표 세미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디코드는 ‘개발협력을 통해 누군가의 기쁨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최신 동향은 물론, 각국의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 대담, 청중 질의응답을 통해 다각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1월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정기 운영되고 있는 인디코드는 최근 26회를 맞아 ‘ODA 사업 참여 방안: 대학과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안동원 이사장이 연사로 참여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ODA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과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인디코드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강연뿐 아니라 온라인(ZOOM)으로도 생중계돼 접근성을 높였다. 세미나 후에는 편집된 영상 콘텐츠를 ‘인디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제개발협력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 집약된 영상은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ODA 교육 콘텐츠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문경연 국제개발협력원장은 “인디코드는 국제개발협력의 이론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지역 사회 구성원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배우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확대와 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창 대성고 옛 교정, 영상 촬영지로 새 숨결 불어넣는다

고창교육지원청, 전주영상위원회와 협약 체결

고창의 폐교가 영상 문화 콘텐츠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과 전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선태)는 19일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유휴 폐교 공간인 대성고를 영상 촬영지로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창교육지원청은 폐교 시설의 안전한 활용과 촬영 편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전주영상위원회는 영



고창교육지원청은 폐교 시설의 안전한 활용과 촬영 편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전주영상위원회는 영

화·드라마·광고 등 다양한 제작사에 대성고를 촬영지로 적극 홍보하고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숙경 교육장은 “버려진 폐교가 창작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과 예술이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영상위원회 관계자 역시 “대성고는 옛 교정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촬영지로 ‘꼭봐 속았수다’ 등 이미 수많은 작품이 촬영된 폐교”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콘텐츠가 대성고에서 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향후 다른 폐교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